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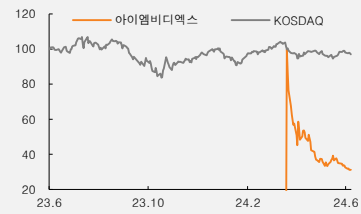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4/6/21)	11,24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4F,십억원)	-59
Consensus 영업이익(24F,십억원)	-
EPS 성장률(24F,%)	적자지속
MKT EPS 성장률(24F,%)	-
P/E(24F,x)	-
MKT P/E(24F,x)	-
KOSDAQ	852.67

시가총액(십억원)	158
발행주식수(백만주)	14
유동주식비율(%)	63.9
외국인 보유비중(%)	0.0
벤투(12M) 일간수익률	2.66
52주 최저가(원)	11,210
52주 최고가(원)	36,000

(%)	1M	6M	12M
절대주가	-12.1	0.0	0.0
상대주가	-12.7	0.0	0.0



[첨단의료기기/디지털헬스]

김충현, CFA  
choonghyun.kim@miraeasset.com

# 아이엠비디엑스

## 국내 1위 액체생검 플랫폼 기업

### 기업개요

동사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혈액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암환자의 혈액에서 암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액체생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암 조기 진단부터 정밀의료까지 암발생 전 주기에 걸쳐 상용화된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국내 주요 34개 병원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임상처방이 시작된 1Q21 이후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여 국내 1위 액체생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암발생 전 주기에 걸친 제품 라인업

동사는 암 진행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진행암(advanced cancer)의 정밀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1) 알파리퀴드 프로파일링부터, 1~3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암 재발을 조기에 탐지하는 2) 캔서디텍트, 그리고 다중암 조기진단(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에 사용되는 3) 캔서파인드를 개발하였다.

### '24년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한 9억원 달성

동사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국내, 해외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 200%로 성장하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한 9억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 1분기 아이엠비디엑스의 제품/상품별 매출비중은 알파리퀴드 100 71%, 알파리퀴드 HRR 6%, 캔서디텍트 13%, 캔서파인드 8%, 상품(알파리퀴드 튜브) 3%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21년 3%, '22년 14%, '23년 35%, '24년 1분기 37%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결산기 (12월)	2021	2022	2023
매출액 (십억원)	1	3	4
영업이익 (십억원)	-5	-9	-8
영업이익률 (%)	-500.0	-300.0	-200.0
순이익 (십억원)	-10	-10	-10
EPS (원)	-928	-914	-912
ROE (%)	87.7	39.0	91.3
P/E (배)	-	-	-
P/B (배)	-	-	-
배당수익률 (%)	-	-	-

주: K-IFRS 별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기업 개요

### 혈액에서 암 유전자를 발견하는 액체생검 기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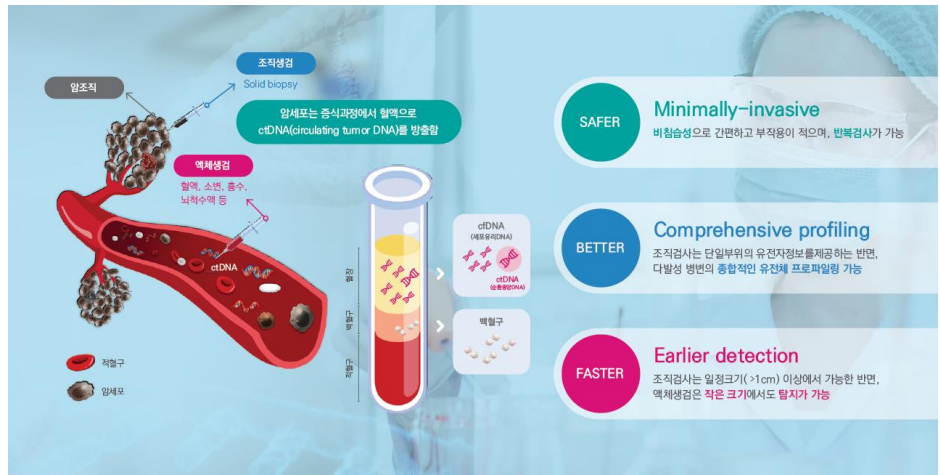
아이엠비디엑스의 영문명 IMBdx는 'In My Blood Diagnostics'의 약자로, 2014-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중심병원에서 진행된 암유닛 액체생검 프로젝트에서 스피노프하여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김태유 교수와 방두희 교수가 2018년 창업하였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국내 주요 34개 병원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임상처방이 시작된 1Q21 이후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여 국내 1위 액체생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혈액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암환자의 혈액에서 암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액체생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암 조기진단부터 정밀의료까지 암발생 전 주기에 걸쳐 상용화된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액체생검(liquid biopsy)이란 비침습적 검사방법으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체액을 채취하고 분석해 암세포가 방출하는 DNA, RNA 등의 분자를 검사하는 기술이다. 수술이나 시술으로 1cm 이상의 암조직을 떼어내 침습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생검(solid biopsy)에 비해서 고통이 덜하고 부작용이 없어 반복검사가 가능하고, 작은 크기에서도 탐지가 가능해서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생검은 단일 부위에 대해 진행되는 반면, 액체생검은 종합적인 유전체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액체생검이 가지는 특징점으로 인해 2013년에 개발된 이후, 암 정밀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사는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인 순환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를 검출하는 액체생검 기술을 활용한다. ctDNA는 혈액 속에 1조분의 1그램 이하의 극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 기술로는 탐지해내기 매우 어렵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어 미충족수요가 높다. 또한, 암은 초기 단계일수록 크기가 작아 암세포에서 방출되는 ctDNA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진행암(0.1% ctDNA) 및 그 이전 단계(0.001%~0.01% ctDNA)에서 극미량의 ctDNA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액체생검 기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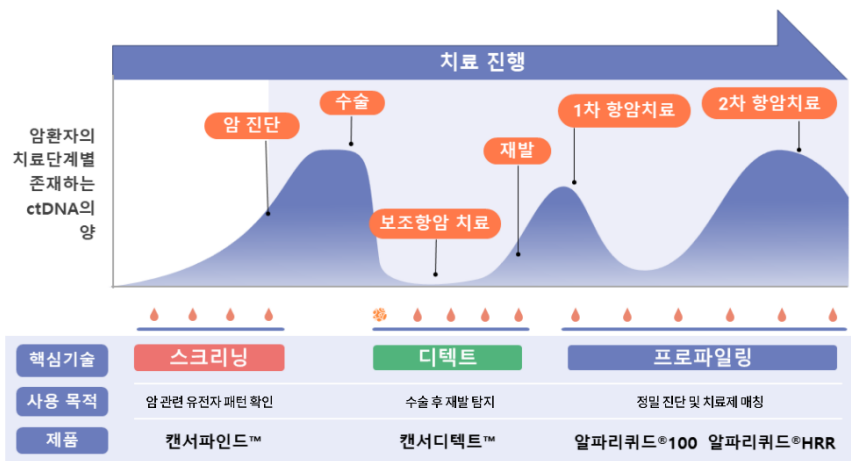
동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에 기반한 액체생검 기술을 이용해서 1) 진행암 정밀진단/치료, 2) 암 재발 모니터링, 3) 다중암 조기진단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각 사업영역에 최적화된 분석기술과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20년, '21년, '22년에 차례로 알파리퀴드, 캔서디텍트, 캔서파인드의 개발을 완료하며 암 전 주기에 걸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

그림 1. 조직생검 대비 액체생검의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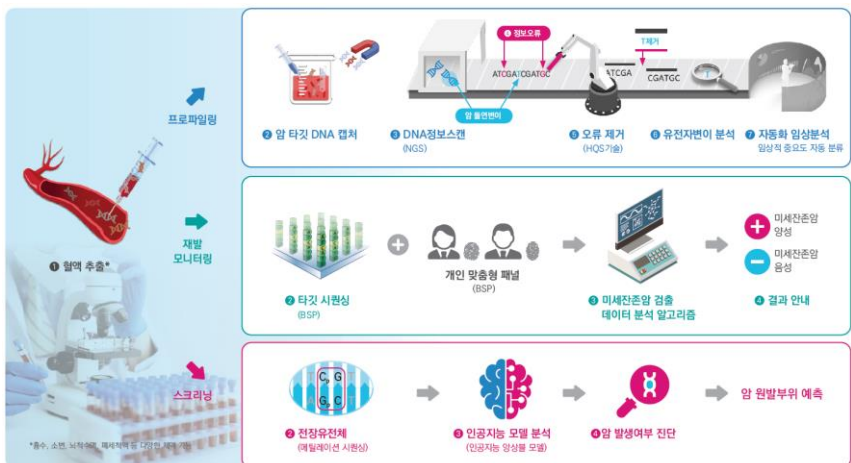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암 진단/치료 전 주기를 아우르는 IMBdx의 알파리퀴드® 플랫폼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암 진행단계별 NGS 기반 액체생검 프로세스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IMBdx 제품 라인업

동사는 암 진행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진행암(advanced cancer)의 정밀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1) 알파리퀴드 프로파일링부터, 1~3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암 재발을 조기에 탐지하는 2) 캔서디텍트, 그리고 다중암 조기진단(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에 사용되는 3) 캔서파인드가 있다.

### 1) 알파리퀴드® 100/알파리퀴드® HRR: 진행암 정밀진단/치료를 위한 프로파일링

동사는 진행암 정밀진단 및 표적치료제 선별에 쓰이는 알파리퀴드 100과 진행성 전립선암의 표적치료제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에 사용되는 알파리퀴드 HRR을 개발하였다. 두 제품은 각각 118개의 유전자 변이 분석 그리고 15개 유전자 선별 분석이 가능하다.

알파리퀴드 100은 아이엠비디엑스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제품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을 포함한 주요 고형암 3-4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의성(clinical significance)이 있는 118개의 유전자를 탐지하여 진행암을 정밀진단하기 위한 다종양 유전자패널(Pan-Cancer DNA Panel)이다.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임상에 도입되어 NGS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총 누적건수는 2,098건이다. 임상처방이 1Q21에 최초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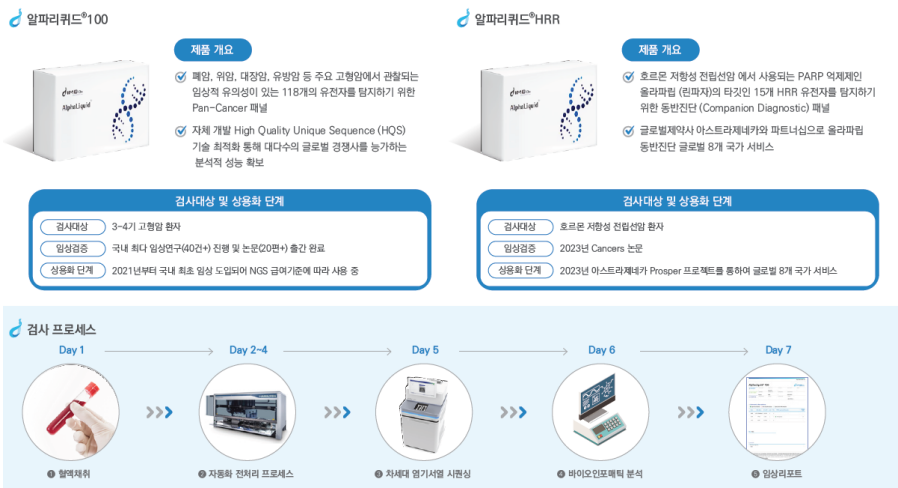
알파리퀴드 HRR은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 3-4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2년 11월 아스트라제네카(AZ)와의 동반진단 협약을 맺고 AZ의 블록버스터 전립선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에 대한 동반진단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동반진단이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의약품에 약효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로, 알파리퀴드 HRR은 린파자의 타깃인 15개의 HRR 유전자를 탐지함으로써 린파자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자를 찾아준다. 작년 말 마무리된 AZ의 PROSPER 2.0 프로젝트 협약 1/2 단계를 통해 현재 대만,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9개국에 서비스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협약 2단계를 통해 중동, 멕시코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4. IMBdx의 암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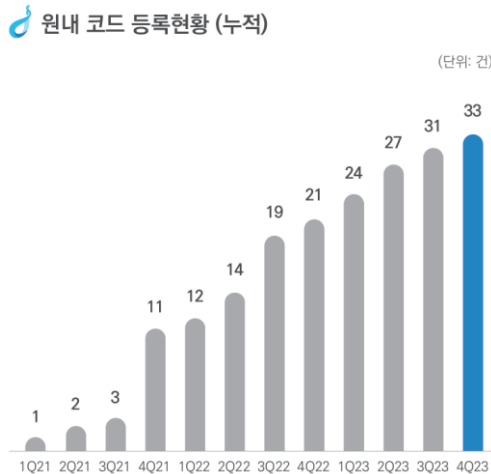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IMBdx의 진행암 프로파일링 제품: 알파리퀴드® 100/ 알파리퀴드® H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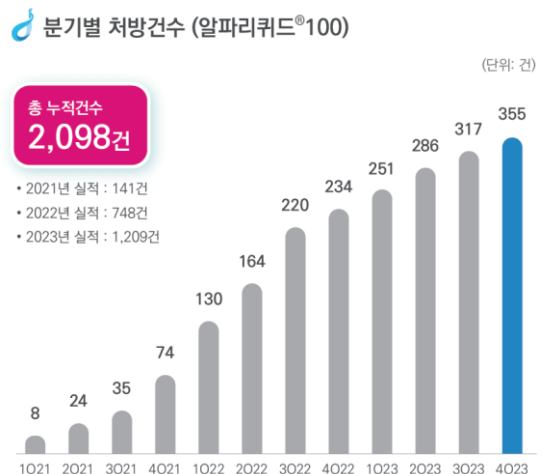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알파리퀴드® 100 원내코드 누적 등록현황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알파리퀴드® 100 분기별 누적 처방건수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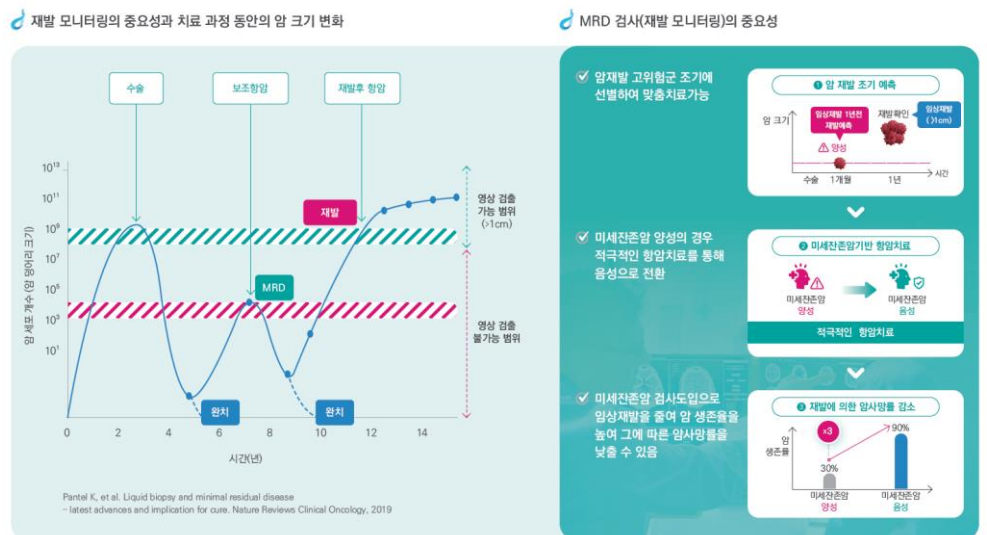
## 2) 캔서디텍트: 1~3기암 수술 후 미세잔존암 진단

암 치료를 받은 환자 중 30% 이상은 5년 이내에 재발한다. 암 수술 후 남아있는 아주 적은 수의 암세포 덩어리인 미세잔존암은 향후 암재발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를 조기발견하는 것은 임상재발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영상검사로는 수술 후 약 1년 후에 암덩어리가 1cm 이상의 크기로 커지고 나서야 임상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cm 미만의 크기를 가지는 미세잔존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액체생검 방식을 필요로 한다.

캔서디텍트는 국내 유일 그리고 세계에서 세번째로 개발된 암 재발 모니터링 제품으로 1~3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잔존암(Minimal Residual Disease, MRD) 검사를 통해 재발을 조기에 탐지하는 제품이다. 수술 1개월 뒤부터 정기적인 검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검사법에 비해 수개월 이른 시기에 재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추후 항암 치료 용법 및 용량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수술 당시에 검출한 환자의 종양 특이적 유전자 변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100% 개인 맞춤형 패널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수술 4주 뒤 맞춤형 패널을 이용해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면 민감도가 63.7%로 비맞춤형 패널을 이용했을 때(27.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미국 나테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PCR 기반의 시그나테라에 비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특히 중요한 수치인 민감도에서, 항암 전, 항암 후에 각각 경쟁사 제품 대비 22%p, 1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동사의 ctDNA의 검출한계도 0.001%로, 가던트헬스나 나테라 제품의 검출한계인 0.01%에 비해 극저빈도 ctDNA도 검출이 가능하다. 현재 총 6개의 암종에 대해 약 62억원 규모의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 8. 미세잔존암(MRD) 검사의 중요성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아이엠비디엑스 재발 모니터링 제품: 캔서디텍트™

### 제품 개요

- LOD 0.001%의 극저빈도 종양 신호 검출 가능  
→ 극미량의 혈액내 ctDNA를 탐지하는 기술로 미세잔존암 측정 가능
- 하이브리드 캡처 NGS 기술 기반의 미세잔존암 검사 플랫폼으로, ~100여개의 마커에 대한 커버리지 가능
- 조직에서 유래된 환자 특이적 마커와 더불어, 치료타겟이 알려진 추가적인 마커까지 포함 가능한 개인맞춤형 패널
- 환자의 재발 여부 뿐만 아니라, 추후 항암 요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임상적 유용성

검사대상 및 상용화 단계

검사대상	1-3기 수술 후 환자
임상검증	대장암 N=98 (2022 원료), N=1,200 (국가암정보 과제 2022-) / 유방암 N=300 (2022-2023) / 위암 N=100 / 976 (2022-2023)
상용화 단계	2022년 RUO 출시 완료, 2023년 임상적용

### 검사 프로세스

1 암 조직 역습시퀀싱



FFPE (10µm x 10µm)  
PBMC



환자 암 조직 및 정상 세포  
DNA 추출



전장 역습 시퀀싱



개인 맞춤형 패널 제작

- 수술 암조직 역습시퀀싱으로 유전자변이 선별 (100~1,000개 내외)
- 혈액세포 검사를 통해 발견된 germline 유전자 및 급성유전자를 분석과정에서 제거
- 체세포돌연변이만으로 미세잔존암검사용 개인맞춤 패널을 제작 (100~500개 내외 유전자변이 대상)

2 수술 1개월후 개인맞춤형 패널 검사



환자 채혈



DNA 추출



개인맞춤형 패널 시퀀싱 (100,000x)

수술 1개월후 개인맞춤형 패널검사를 통하여 미세잔존암 존재를 검사 (2개이상 존재하는 경우 미세잔존암 양성)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캔서디텍트™의 경쟁력

### 캔서디텍트 주요 경쟁력

- 국내 최초, 전세계 세번째로 개발된 조직유래 캡처 기반 패널
- 미국 나테라社가 최초로 개발한 조직유래 종합효소연쇄반응법(PCR) 대비 뛰어난 성능 보유

종양 유전체 변이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패널 제작 및 판별

+

최대 500개의  
모니터링 변이  
추적 관찰

+

ctDNA의 절편을  
효율적으로 증대

+

저항성 돌연변이  
암 세포 검사 능력

=

**0.001% 까지**  
극미량의  
ctDNA 검출

###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우수 경쟁력

구분	캔서디텍트	GuardantReveal™(가던트헬스社)	시그나테라(나테라社)
혈액량	20 mL	40 mL	20 mL
진단시간	4~5주	2주	4주
ctDNA 검출한계	0.001%	0.01%	0.01%
항암 전	민감도	-	41.2%
	특이도	90.8%	-
항암 후	민감도	64.7%	50.0%
	특이도	100.0%	94.7%
가격	\$1,600	\$3,500	\$3,900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3) 캔서파인드: 다중암 조기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다중암 조기진단(MCED)는 암환자가 아닌 일반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암의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여러 종류의 암을 동시에 스크리닝하는 진단법이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암 사망의 71%는 선별검사가 따로 없는 암(e.g. 췌장암, 간암, 뇌암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중암 조기진단을 도입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조기진단이 어려운 암들도 조기에 발견해 적시에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생존율을 5~10배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엠비디엑스의 캔서파인드는 23년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한 번의 채혈로 8개의 암종(대장/위/간/췌장/폐/유방/난소/전립선)에 대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한다. 인공지능(AI) 양성분 모델을 활용해서 DNA를 정밀분석한다. 암종마다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틸레이션, 복제수, 그리고 DNA 절편의 특징을 종합분석하여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해당 제품을 통해 암 관련 시그널을 검출하고 암의 원발부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암검진 정확도는 86%, 위치 예측 정확도는 84%에 달한다.

캔서파인드는 질병관리청에 유전자검사 항목으로 등록이 완료됐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산하 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미 150건 이상의 검사진행이 완료되었다. 50종의 암종에 대해 스크리닝이 가능한 나테라사의 시그나테라와 비교해 캔서파인드는 아직 8종의 암종에 대해서만 스크리닝이 가능하지만, '25년에는 20개 이상으로 암종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1. 아이엠비디엑스 다중암 조기진단 제품: 캔서파인드™

그림 12. 다중암 조기진단(MCED) 및 캔서파인드의 비교우위

검사종류	역제형질 다중암 조기발견 (MCED, multicancer early detection) 검사 비교우위				
	다중암 스크리닝 (MCED)	MRI	PET-CT	암양성 건강검진	유방촬영술
비용	1회 검사로 다중암 진단	42만~400만	15만	100만	암종별 3만
대상 암종	1회 검사로 다중암 진단	간암/유방암/위암/전립선암/자궁경부암 등	유로 고형암	유로 고형암	4~6 암종
검사시간	혈액용 이용하므로 비침습적	20~60분 / 부위별	90~120분	3~5시간	5분 이내
진단시간	방사선 노출 없음	3일 이내	3~5일	1주일 이내	7일 이내
민감도	한정적인 검사 주기, 조기 발견 가능	85.0%	50~90%	46~93%	-
특이도		95.7%	93~95%	81~98%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번의 채혈로 다중암 진단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li> <li>• 부위마다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li> <li>• 작은 크기 병변 탐지 불가</li> <li>• 대량의 방사선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종마다 다른 검사방법으로 긴 검사시간과 결과 출보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병변, 간헐적 검사</li> <li>•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li> </ul>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IMBdx 1분기 실적 Review

### 2024년도 1분기 실적 및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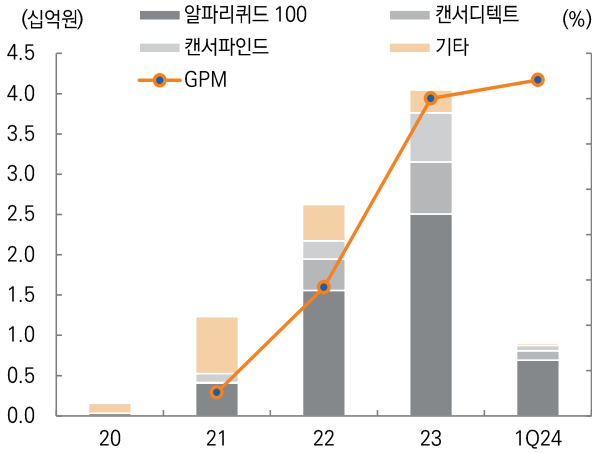
동사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한 9억원을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 해외 매출은 각각 21%, 200%로 성장하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48%로 확대되었다. 2024년 1분기 아이엠비디엑스의 제품/상품별 매출비중은 알파리퀴드 100 71%, 알파리퀴드 HRR 6%, 캔서디텍트 13%, 캔서파인드 8%, 상품(알파리퀴드 튜브) 3%으로 여전히 알파리퀴드 100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매출총이익률은 '21년 3%, '22년 14%, '23년 35%, '24년 1분기 37%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3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실 30억원으로 적자상태를 지속했다. 판관비의 약 67%를 차지하는 연구개발비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22억원을 기록하며 해당 비용 증가를 주도했다. 동사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출성장을 대비 판관비 증가율을 통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개선되고 있다. 동사는 올해 1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8%이다.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 매출 12억, 26억, 40억을 차례로 달성하며 연평균 81%로 성장했다.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파리퀴드 100이 해당 기간 연평균 136%로 성장하며 매출성장을 견인하였다. 암 전주기에 걸쳐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21년부터는 알파리퀴드 100 매출에 캔서파인드와 캔서디텍트의 매출이 추가되었으며, 유의미한 매출 성장을 통해 '23년 캔서파인드/캔서디텍트 각각 6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알파리퀴드 HRR도 '23년도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PROSPER 2.0 프로젝트로 글로벌 9개 국가에 린파자의 동반진단 제품으로 서비스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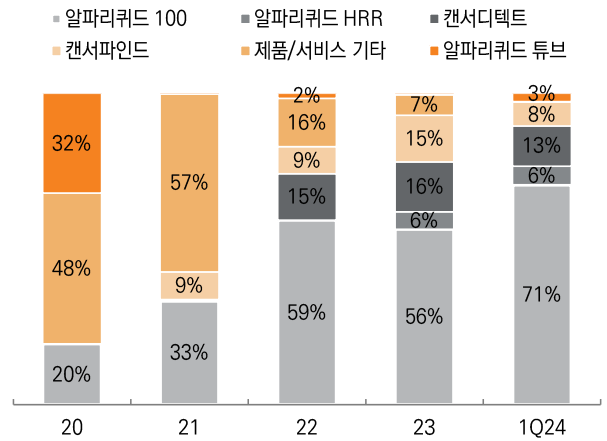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대리점, 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프로젝트 커버국가 및 운송 파트너사를 포함하여 총 23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특히 '21년에 가장 먼저 진출한 대만에서는 대만 내 액체생검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다.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로 '21년에 5%에 그쳤던 수출 비중이 '23년에는 21%까지 성장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수출비중이 48%까지 성장하였다. '21년에 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태국, 칠레, 레바논, 필리핀, 이탈리아, 에콰도르, 브라질, 등으로 늘려가고 있어, '23년 대만 매출의 비중은 75%로 줄어들었다. 알파리퀴드 HRR 제품은 이미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에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순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림 13. 아이엠비디엑스 매출 및 매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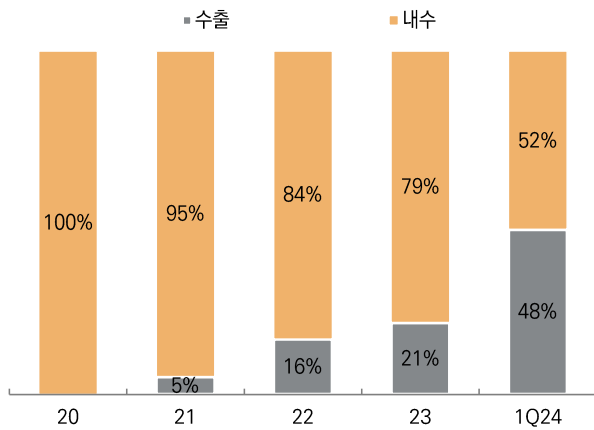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이엠비디엑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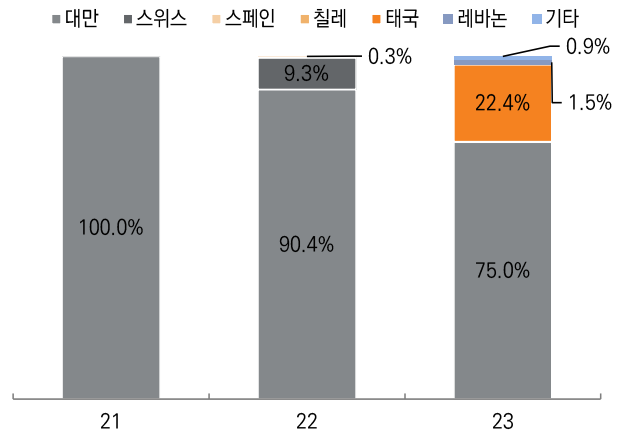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아이엠비디엑스 수출/내수 매출 비중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아이엠비디엑스 수출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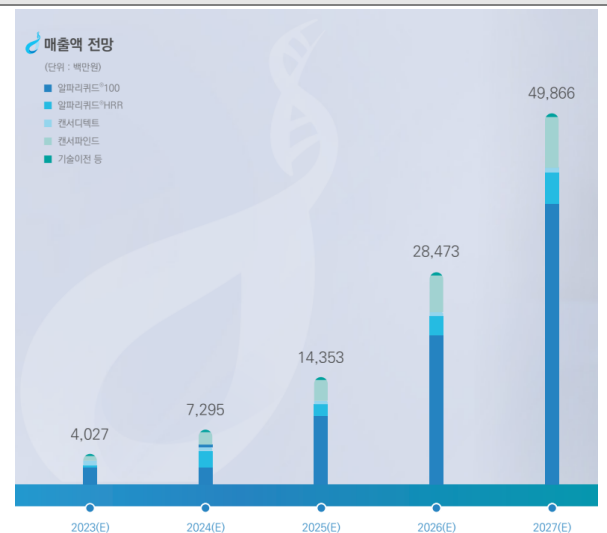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IMBdx의 국내/해외 주요 매출처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IMBdx의 매출액 전망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Appendix. 시장규모 및 경쟁 현황

### 1. 액체생검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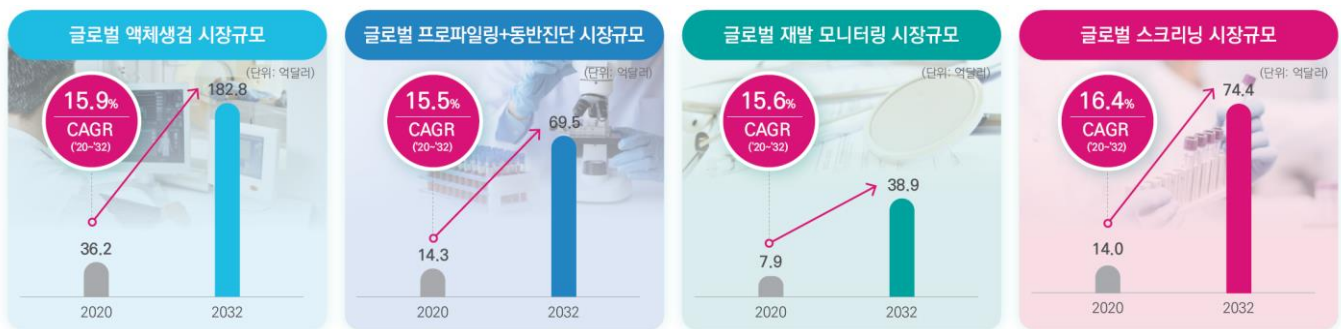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rand View Research는 세계 암 진단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16%로 1,623억 달러(약 2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암진단 중에서도 액체생검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20년 36억 달러에서 2032년 183억 달러(약 24조원)까지 연평균 15.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진단기업들이 액체생검 사업에 새로이 진출함으로써 액체생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동반진단 증가와 신약임상 적용 확대로 본격 성장세에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른 암 진행주기별 진단시장의 규모는 먼저 프로파일링+동반진단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4억 달러에서 2032년 70억 달러까지 연평균 15.5%로, 재발 모니터링의 시장규모는 2020년 8억 달러에서 2032년 39억 달러까지 연평균 15.6%로, 스크리닝 시장규모는 2020년 14억 달러에서 2032년 74억 달러까지 연평균 16.4%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경쟁 현황

액체생검 분야에서 상용화된 제품을 보유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는 가던트헬스, 파운데이션 메디슨, 나테라, 일루미나, 그레일 등이 있다. 프로파일링 분야에서는 가던트헬스의 Guardant360와 파운데이션 메디슨의 FoundationOne Liquid CDx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재발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PCR 기술에 기반한 나테라의 Signatera가 있다. 스크리닝 분야에는 그레일의 Galleri가 50종 이상의 암에 대해 7일 이내에 스크리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 암 정밀의료별 시장규모 전망(2032년 예상)



자료: Precedence Research,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아이엠비디엑스 (46103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b>매출액</b>	<b>1</b>	<b>3</b>	<b>4</b>
매출원가	1	2	3
매출총이익	0	1	1
판매비와관리비	5	9	9
조정영업이익	-5	-9	-8
영업이익	-5	-9	-8
비영업손익	-5	-1	-2
금융손익	-1	-1	-1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10	-10	-10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계속사업이익	-10	-10	-10
중단사업이익	0	0	0
<b>당기순이익</b>	<b>-10</b>	<b>-10</b>	<b>-10</b>
지배주주	-10	-10	-10
비지배주주	0	0	0
<b>총포괄이익</b>	<b>-10</b>	<b>-10</b>	<b>-10</b>
지배주주	-10	-10	-10
비지배주주	0	0	0
EBITDA	-4	-7	-6
FCF	-5	-8	-7
EBITDA 마진율 (%)	-400.0	-233.3	-150.0
영업이익률 (%)	-500.0	-300.0	-200.0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1,000.0	-333.3	-250.0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b>유동자산</b>	<b>21</b>	<b>13</b>	<b>6</b>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	5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1	1
재고자산	0	1	0
기타유동자산	2	6	1
<b>비유동자산</b>	<b>3</b>	<b>4</b>	<b>3</b>
관계기업투자등	0	0	0
유형자산	3	3	3
무형자산	0	0	0
<b>자산총계</b>	<b>24</b>	<b>17</b>	<b>10</b>
<b>유동부채</b>	<b>46</b>	<b>48</b>	<b>1</b>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1
단기금융부채	45	47	0
기타유동부채	1	1	0
<b>비유동부채</b>	<b>0</b>	<b>0</b>	<b>0</b>
장기금융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b>부채총계</b>	<b>46</b>	<b>48</b>	<b>1</b>
<b>지배주주지분</b>	<b>-22</b>	<b>-31</b>	<b>8</b>
자본금	0	1	1
자본잉여금	2	1	51
이익잉여금	-25	-35	-46
<b>비지배주주지분</b>	<b>0</b>	<b>0</b>	<b>0</b>
<b>자본총계</b>	<b>-22</b>	<b>-31</b>	<b>8</b>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b>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4</b>	<b>-6</b>	<b>-6</b>
당기순이익	-10	-10	-10
비현금수익비용가감	6	5	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2	2
무형자산상각비	0	0	0
기타	5	3	2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0	-1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0	-1
재고자산 감소(증가)	0	-1	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0	0
법인세납부	0	0	0
<b>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1</b>	<b>-7</b>	<b>5</b>
유형자산처분(취득)	-1	-2	0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	-6	6
기타투자활동	3	1	-1
<b>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20</b>	<b>0</b>	<b>0</b>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45	2	-47
자본의 증가(감소)	2	0	50
배당금의 지급	0	0	0
기타재무활동	-27	-2	-3
<b>현금의 증가</b>	<b>17</b>	<b>-14</b>	<b>-1</b>
기초현금	2	19	5
기말현금	19	5	4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1	2022	2023
P/E (x)	0.0	0.0	0.0
P/CF (x)	0.0	0.0	0.0
P/B (x)	0.0	0.0	0.0
EV/EBITDA (x)	-6.0	-5.0	0.7
EPS (원)	-928	-914	-912
CFPS (원)	-361	-482	-549
BPS (원)	-1,956	-2,727	729
DPS (원)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배당수익률 (%)	-	-	-
매출액증가율 (%)	-	113.3	53.4
EBITDA증가율 (%)	-	-	-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	-	-
EPS증가율 (%)	-	-	-
매출채권 회전율 (회)	5.7	5.4	5.1
재고자산 회전율 (회)	56.0	8.0	8.5
매입채무 회전율 (회)	9.9	8.1	9.8
ROA (%)	-81.5	-50.4	-76.7
ROE (%)	87.7	39.0	91.3
ROIC (%)	-311.2	-206.2	-166.0
부채비율 (%)	-207.6	-155.7	18.0
유동비율 (%)	44.6	27.2	534.6
순차입금/자기자본 (%)	-115.2	-116.0	-48.5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6.7	-6.5	-8.2

자료: 아이엠비디엑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아이엠비디엑스 의 IPO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